"내가 오늘 너희들을 모두 모은 이유는~"

같은 학년의 타 학급이 섞여 몸을 움직이는 체육 시간. 본래라면 테니스 연습을 했어야 할 시간이었으나, 체육 선생님의 따가운 눈초리를 피해 구석 그늘에 옹기종기 모여 당당하게 게으름을 피우는 다섯명이 있었다. 게으름의 원흉인 칼로가 친구들 사이로 우뚝 나섰다. 아이는 계단 근처의 나무 아래에 서서 비장하게 뜸을 들였다. 광고를 앞둔 티비 방송처럼 뜸을 들이는 모습에 답답해졌는지 스카일러가 먼저 툭 말을 뱉었다.

"모은 이유는?"

"또 이상한 일을 시키려 그러는 거겠지!"

"쟤가 저러는 거 하루 이틀 일인가?"

"우리까지 부른 걸 보니… 이번에 뭐 크게 사고치려나본데..."

칼로의 가장 친한 녀석들인 두 명의 베스트 프렌즈와 그 다음으로 친한 다른 반 친구들이 한마디씩 보탰다. 함께 모인 모든 아이들이 익숙하다는 듯이 끄덕였다. 냉랭한 친구들의 반응에도 칼로는 기죽지 않았다. 아이는 테니스 라켓을 들고 지상보다 조금 높은 위치에 서서 어디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도 된 양 당당하게 입을 열었다.

"아니, 사고라니? 나는 항상 모험이 될만한 재미있는 일을 가져오는 것뿐이라고. 우리가 언제 사고 친 적 있어? 안 그래?"

"자주 치... …"

"그치 우리 베스트 프렌드 스카이!"

칼로는 퉁명스럽게 대꾸하려는 스카일러의 옆구리를 쿡 찔러 입을 막았다. 옆구리를 찔린 아이가 불만스러운 시선으로 얄미운 친구를 흘겨보자 리암이 재빨리 끼어들었다. 리암은 어디 싸움이라도 날새라 황급히 스카일러를 토닥이며 위로해주었다. 친구의 매서운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칼로는 바로 본론을 꺼냈다.

"아무튼 일단은 들어봐. 한 삼 년 전 쯤에... 여기서 멀지 않은 금방에 큼직한 운석이 떨어진 건 다들 알고있지?"

뜬금없이 언급된 운석 이야기에 같이 모인 아이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어보였다. 그게 어쨌다는 거지? 하는 얼굴이었다. 칼로의 말대로 약 3년 반 정도 전, 데임 타운에 운석이 떨어졌다. 운석이라는 것이 은근히 희귀하고 경우에 따라 값나가는 물건이었기에, 운석의 흔적을 찾으려는 사람들로 조용한 데임 타운과 인근 지역이 북적이었다고 한다. 물론 지역 뉴스로 화제가 된 후, 아주 잠시간이었지만 말이다. 이는 스카일러가 데임 타운으로 이사오기 몇 달 전쯤의 일이었다. 현재 마을로 이사 오기 전에 일어난 사건인 탓에 스카일러로서는 자세히 아는 바가 없었다.

“하늘에서 폭발한 운석이 데임타운하고 근처 숲이나 길이나 땅 위로 떨어졌잖아. 레트 아저씨가 먼저 주워서 뉴스에 나오기도 한 그거.”

“그게 어쨌다는 거야? 운석 줍는 사람들이 다 쓸어갔잖아. 나는 구경도 못 했는데…”

함께 이야기를 듣던 타 학급 친구, 케이든의 불만에 칼로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나도 운석의 먼지도 보지 못했어. 기본적으로 운석은 비싸고~ 데임 타운의 운석은 소원을 들어준다느니 뭐니, 디즈니 만화에서나 나올 만한 소리를 하니까. 어른들이 그런 걸 워낙 좋아해야지.”

아이의 말대로 데임 타운 근방에 떨어진 운석은 세간에서 은근한 화제가 되었다. 운석의 가격도 가격이나 소지자의 바램을 들어준다는 묘한 이야기가 돌았으므로.

“희귀하니까, 그래서 발견된지 얼마 안 되어서 어른들이 전부 다 주워서 팔아버렸는 줄 알았거든. 근데 이제 와서 요상한 소문을 들었지 뭐야?”

“소문?”

“마코하이 숲에 누가 운석을 잔뜩 주워다 숨겨두었다는 거야. 그걸 실제로 주운 사람이 있으니까 확실하고. 흥미롭지 않아? 이제와서 운석이라니? 그걸 주워다가 안 팔고 모아둔다는 소문도 그렇고.”

“너… 도대체 그런 이야기는 어디서 주워 들었어?”

수상히 여기는 친구의 물음에 칼로는 시선을 피하며 어깨를 으쓱했다. 떳떳하지 못할 때 자주 하는 행동이었다.

“음… 미리 솔직히 고백할게. 사실 소문까지는 아니고 몰래 보고 들은 거지만…?”

“너?”

스카일러는 칼로의 옆구리를 쿡 찔렀다. 아까 전의 반격 반, 한심함을 담은 질책 반이었다. 친구의 바보짓을 바라보는 냉랭한 시선은 덤이었다.

“새비 아주머니의 차고 로맨스를 구경하다가 운 좋게. 응. 새비 아주머니가 새로운 남자친구한테 운석 조각을 보여주더라고. 숲에서 가져왔다면서 말이지.”

칼로의 부모님은 타지에서 각각 삼류 신문 기자와 파파라치 일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제 부모를 꼭 닮은 탓인지 아이는 종종 제 호기심과 흥미를 채우기 위해 선을 넘는 짓을 저지르고는 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요컨대 칼로가 물어온 유성에 관한 이야기는 남의 집 불륜 현장을 몰래 구경하다 얻어 걸린 소문인 셈이다.

“너 또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갔어?”

“들어가지는 않았어. 몰래 들은 거지. 아무튼 사소한 건 넘어가자.”

스카일러의 투덜거림이 깔끔하게 무시당할 때쯤, 문득 열심히 경청하던 케이든이 인상을 찌푸렸다. 이런 모임, 이런 대화 전부 다 익숙한 패턴이었다. 케이든은 칼로가 주기적으로 벌이는 여러 ‘혼날만한 사건’에 휘말리기 바로 전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챘다.

“설마, 설마설마 칼로 너… 누가 숨겨둔 운석 털러 가자고 하는 건… 아니겠지? 그래서 우리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어? 맞는데? 용돈 벌고 싶지 않아? 새 게임기 사고 싶다면서.”

칼로는 히죽 웃으며 회유하듯 망설이는 네 친구에게 비밀스럽게 속삭였다.

“운석은 비싸다고? 네 손톱만한 크기로 게임기 두 개는 살 수 있을 걸?”

“나 용돈 안 부족해.”

유혹을 뿌리치겠다는 듯이 리암의 고개를 흔들었다. 물론 고개만 흔들 뿐 이미 반쯤 넘어간 얼굴이었지만.

“그리고 말이야. 돈도 돈이지만 운석 실물이 어떤지 궁금하지 않아? 책으로 보는 것과 다를지도 모르고?”

칼로의 회유는 천문학자가 꿈이라는 친구에게 직통으로 먹혀들어갔다. ‘운석을 찾으러 가자’는 제안에 반쯤 넘어갔던 리암은 결국 전부 넘어간 모양새였다. 겁이 많은 케이든이 먼저 머뭇거렸다.

“그치만… 그치만 정말 찾을 수 있을지 모르잖아… 마코하이 숲은 특히나 위험할 수도 있으니 꼭 어른들이랑 같이 가야 한다 들었어.”

칼로가 매번 판을 벌리면 항상 제일 먼저 걱정하는 내향적인 친구다운 모습이었다. 스카일러가 동의의 한마디를 얹으려고 할 때, 결국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리암이 먼저 나섰다.

“있지, 잠시 다시 생각해봤는데... 우리가 뭐어 위험한 짓 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살펴보는 것 정도는 괜찮지 않아?”

“그래도…”

“칼로의 말이 사실일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궁금하잖아? 진짜면 대박을 치는 거고…! 아니어도 뭐… 나 예전부터 그 숲 안이 궁금했어.”

어른들은 이상할 정도로 우리가 마코하이 숲에 가는 것을 꺼려하니까. 리암의 말에 아이들은 서로를 보았다. 말로 하지는 않았으나 묘한 호기심이 피어올랐다는 사실은 확실했다. 스카일러는 속으로만 작게 한숨 쉬었다.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니 꼼짝 없이 친구들의 ‘운석 탐험’에 동참해야 할 듯하였다. 익숙한 동갑 친구들에게서 낯선 유치원생의 기운이 느껴졌다.

“정한거지? 숲에 가보는 거지? 나중에 겁쟁이처럼 내빼기 없기다? 내일 모레 학교 끝나고 모이자.”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가 흘러가 한껏 득의양양한 표정을 한 칼로가 신발코로 스카일러의 발을 툭 쳤다. 빠지지 말고 참여해라, 하는 무언가의 의사 전달이었다.

“칼로 맥키니 대책 없이,”

참다 못한 스카일러가 퉁명스레 불평을 늘어놓으려 할 때였다.

학교 건물에서 부산스러운 소란이 일었다. 무언가가 폭발하는 두 번의 굉음이 울려 퍼진 후, 겁에 질린 비명이 잇달았다. 다섯 명의 아이들은 한참 말을 하다 말고 학교 방향으로 주의를 돌렸다. 리암이 먼저 나서 부산스럽게 기웃거리며 케이든과 스카일러의 팔을 흔들었다.

“세상에! 연기야! 불 난 건 아니겠지? 어떡해…”

“진정, 진정해봐. 무섭게 왜 그래.”

리암의 호들갑에 케이든이 우물쭈물 주변을 살폈다. 학교 건물의 2층과 3층 창문에서 새하얀 연기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의문의 굉음에 학생들과 함께 얼이 빠졌던 체육 선생은 그제서야 허둥지둥 아이들을 한데 모으며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던 스카일러는 문득 선득한 기분에 고개를 돌렸다. 어디서 이 비슷한 일을 겪은 기억이 있지 않던가?

“… …”

8학년 쌀쌀한 가을의 데임 타운 기초학교에서 일어난 폭발 사고. 가을 날의 흰 연기. 그 사고의 원인은... 스카일러는 아침에 그러하였던 것처럼 다시 이마를 짚었다.

‘이거 그… 어쩌다가 노후한 소화전이 폭발했었지 않아…? 왜 이렇게 익숙하지?’

섬광처럼 어떠한 장면이 머리 안을 스쳐지나갔다. 마치 1인칭 시점에서 본 것만 같은 장면과 사건들이었다. 어째서 잊고 있었지? 어째서 잊을 수 있었지? 스스로에게 의문을 가질 정도로 꿈 속의 장면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리버 브레이와 함께 도주하던 악몽 속에서 스카일러는 정확히 똑같은 일을 겪었다. 꿈 속의 스카일러는 마치 드라마나 책의 에피소드를 감상하듯 반 년간의 사건을 하나씩 경험하였다. 아이는 산발적인 사건들이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켜 있던 사실까지 기억한다. 꿈 속에서 겪은 첫번째 사건의 전개는 지금의 상황과 너무나도 꼭 닮아있었다. 마치 예지몽이라고 하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과학 실험실에서 불이 났고… 불을 끌려고 가져온 노후 소화전이 폭발하고, 모두가 대피했던가? 오래된 소화기가 문제였다는 건… 다음날 선생님이 알려주게 될테지만… 지금의 우리는 이런 사실을 모르니 당황해야 하고.’

스카일러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잡으며 자신의 기억을 하나씩 들춰보았다. 오래된 책을 펼쳐 살피듯 자세하지 않은 사건의 종적이 드러났다.

‘화제에 폭발까지 겹쳐서 정신이 없으니까… 선생님도, 케이든도, 아일라도 나도 알렉스가 사라졌단 걸 몰랐어.’

“스카이.”

‘알렉스는 한참 뒤에 발견될 거야. 아주 한참 뒤. 과학실 큰 비품함에 깔린채로 발견되지 못할테니까. 8학년의 대부분이 알렉스의 장례식에 참여할거고… 알렉스의 부모님은 슬퍼했어. 아니지, 슬퍼하겠지.’

“스카일러?”

‘자식을 잃은 슬픔은 클테니까.’

칼로는 무려 세 번이나 친구의 이름을 불렀다. 드물게 얼이 빠진 친구의 모습이 퍽 걱정스러운 기색이었다. 스카일러는 그제서야 슬쩍 고개를 내리며 엉뚱한 답을 중얼거렸다.

“알렉스를 데려와야 해.”

“뭐?”

“알렉스가 없어!”

어리둥절한 표정의 칼로를 뒤로하며 스카일러는 체육 선생 몰래 학교 건물의 뒷문을 향해 대책 없이 내달렸다. 약 10분 전, 칼로를 보고 대책 없다고 한숨 쉬던 스카일러는 온데간데없었다. 학생의 이탈을 뒤늦게 알아챈 체육 선생님의 다급한 부름이 등 뒤에서 들려온 것도 같았다.

<리버가 같이 오고잇음>